

OUTLINE

- (39) -

191.

말씀: 롬 6:4-7

요절: 롬 6:7

이 세상에 죄로부터 해방된 자가 있습니까? 누가 자신을 '죄로부터 해방된 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냥 웃고 말 것입니다. 거짓말이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자는 인류의 스승들로 추앙받는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 같은 이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이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자는 무슨 위대한 성취나 업적이 나 존경 받을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죄는 삶의 환경이 열악해서 생기는 심리적, 정신적 질환이 아닙니다. 죄는 교육의 부재로 인해 생기는 무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죄는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육신의 본능입니다.

- ▶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싫어하는 본성입니다.
- ▶ 죄는 우리 속에 내재하는 성품이며, 인격입니다.
- ▶ 육신의 생명이 그 피에 있듯이 우리의 죄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 ▶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 ▶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 ▶ 우리 몸은 죄의 도구들입니다. 눈, 코, 입, 손, 머리, 발 등 모든 부분이 죄의 종으로서 일합니다.

죄인들은 죄의 쾌락을 즐기지만 죄의 값인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의 꿈은 풀려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사면을 받든지, 감형을 받든지, 탈옥을 하든지 간에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꿈은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이지 '죄로부터의 해방'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죄수들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죄의 대가, 죄의 값, 죄의 형벌을 피할 생각만 합니다. 죄의 권능, 죄의 본능, 죄의 쾌락 등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를 거 의하지 않습니다. 죄를 싫어하거나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것은 죄로 인해 겪는 고통 과 형벌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요일5:17). 하지만 대부분의 죄인들은 불의의 삶을 사랑합니다. '의가 없는 소득'(잠16:8)을 추구합니다. 불의의 삶을 사랑했던 발람이 저주를 받았듯이, 돈을 사랑하다 믿음에서 떠나 패망하는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맘몬을 섬기는 이들은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 **모든 불법은 죄입니다**(요일3:4). 그러나 죄인들은 불법의 대가로 주어진 뇌물이나 승진이나 그에 따르는 이득은 사랑합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죄인들은 결코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의 삶, 죄의 대가로 치러야 할 형벌, 고통을 싫어하고 미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전개되는 대표적인 운동이 사형 폐지 운동입니다. 오늘날 사형 폐지 운동을 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과 인정과 관용이 넘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사형수들을 사랑하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형수의 인권은 생각하지만 희생당한 피해자의 인권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용서, 갱생의 기회를 주장하지만 결코 '공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살인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요, 행동 대원들입니다. **살인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형 폐지는 누구의 편을 들겠다는 것입니까? 마귀의 편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죽임 당한 자들은 생각하지 말고 죽인 자들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형 폐지 운동은 정부가 마귀의 편에 서야 한다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오판(誤判)의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무죄한 죽음이 있을 수 있음도 압니다. 그런 것은 법으로 보완할 문제이지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내던지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죄와 죄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런 죄에 대해 해방되는 분명한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할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했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얻은 결론은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 죄는 _____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엄한 법치주의를 확립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경찰서와 교도소가 동네마다 들어선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유대 율법으로도, 회교 율법으로도 죄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율법

▶ 죄는 _____으로써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육. 어릴 때부터 삼강오륜(三綱五倫)을 비롯한 예절 교육, 인성 교육을 아무리 강화해도 죄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고등 사기꾼이 되거나 더 큰 도둑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절 교육, 인성 교육, 종교 교육 그 무슨 교육을 시킨다 해도 죄는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 죄는 _____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각 민족마다, 나라마다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종교를 가짐으로써 죄가 해결된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이들은 종교의 해악(害惡)이 얼마나 큰지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정죄할 정도입니다. *종교

▶ 죄는 몸의 _____(고행, 금욕, 수련 등)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단련(훈련). 육식을 금하고, 성욕을 억제하고, 세속을 떠나 몸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인 줄로 아는 이들이 있지만 몸의 훈련은 죄를 이기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죄는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똑 같은 죄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민족과 국가를 이루고, 세상을 이룹니다. 마치 세상은 거대한 범죄 수용소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죄의 해결책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요19:30).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은혜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 ▶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_____셨습니다(고전15:3). *죽으
- ▶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_____셨습니다(엡2:1,5 골2:13). *살리
- ▶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들을 _____하셨습니다(히9:15). *대속
- ▶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____셨습니다(벧전2:24). *지
- ▶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셔서 불의한 자를 _____하셨습니다(벧전3:18). *대신
- ▶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____으셨습니다(계1:5). *씻

우리 구주께서 죽으심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기도나 금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이나 신학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_____ 가 _____ .](4).

우리가 죽은 것은 '우리가 그분(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은 유일한 근거입니다.

- ▶ 우리가 죽음을 느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느꼈어! 거짓입니다. 속은 것입니다.
- ▶ 우리가 죽음을 신비스럽게 체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자들이 아닙니다.
- ▶ 우리가 죽음에 대해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 ▶ 우리가 죽으려고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 ▶ 우리가 많이 기도했거나 자주 금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다양한 봉사 활동을 했거나, 주일 성수를 하고, 십일조를 잘 내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거나 많은 업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 속에 죽어 있었습니다(엡2:1,5).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엡4:18).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2).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습니다(3).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4).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3),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3,4)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영적 신분,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믿으면 죄에 대해 죽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에 대해 죽으려고 발버둥을 해도 더욱 살아 있는 자신만 발견할 것입니다. 영적 생활을 하는 이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자아가 살아 있다. 육신의 정욕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자기를 죽이는 훈련에 골몰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찬양하고, 좀 더 성경을 읽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좀 나아지는 듯 하지만 또 다시 반복됩니다. 그럴 때 ‘정녕 나를 죽이는 길이 없는가? 육신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인가?’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기도 하고, 불같은 무엇이 하늘로부터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신앙 선배들과 상담을 하면 ‘자아를 죽이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충고를 하지만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것인지, 어떻게 죽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제 자신이 몸소 겪은 영적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쉽습니다. 쉬울 것도 없는 것이 아예 우리 편에서 할 일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다’는 성경의 선포를 믿으면 됩니다. 성경은 거짓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은 후의 우리는 이미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사망 진단서를 발급해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의 하늘 호적에는 예수님을 믿는 날이 사망일이요, 탄생일입니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란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침례’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침례를 이해하면 이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로 침례를 받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몸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장사지냄의 표시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물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음을 세상에 보여 주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일으켜진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롬10:9)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습니다(고전12:13). 침례가 묻히는 것이기에 성경은 “가 ”라고 선언합니다. 침례는 묻힘과 일으켜짐의 양면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12, [가

.](골2:12).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은 것은 “생명의 새로운 속에서 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4). 죽은 자들만이 부

활의 생명 속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

...(4b).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힌 목

적이 이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죄가 해결되고 부활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속에 걷습니다. 죽은 자는 죄를 지을 수도 없지만 의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생명의 새로움 속에 걸으려면 죽은 자는 반드시 일으켜져야 합니다.

5절입니다. [가

...(5).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묻혔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모두 주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될 것입니다. 영광스런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21, [

...(빌3:21). 그냥 영광스런 몸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스런 몸과 같게”

라고 말하고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

가

...(요한3:2b). 우리는

주님과 정확하게 똑 같은 형상,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과 동일한 부활의 모양을 갖게 된다는 것은 주님과 동일한 죽음과 묻힘을 당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

가 가

(가

.)

...(엡2:5-6). 성경은 함께 죽었음과 더불어 함께 살리셨음을 말

합니다. 이것이 몸으로 드러나는 것을 부활입니다.

6절입니다. [가

가

가

...(6). 3절에 이어 또 ‘안다’(knowing)는 말이 등장합니다. 믿는 자들은 압니다.

우리는 우리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음을 압니다. 우리는 죄의 몸이 멸해졌음을 압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옛 사람 즉 아담의 성품을 물려받은 우리의 옛 사람을 못 박았습니다.

▶ [가 가 ...](갈2:20a).

▶ [가 가 ...](갈5:24).

▶ [가 가 가 가 가](엡 4:22).

이것은 신비주의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문자 그대로 믿는 우리 속에 일어난 영적 실제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현 주소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뜬다면 우리는 2중적 크리스천의 모순된 삶과 방향, 갈등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 속에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엡4 24).

•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 속에는 새 사람이 존재합니다.

[...](골3 10).

•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후5:17).

7절입니다. [.](7). 죄로부터 해방된 자가 누구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고등 교육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종교심이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힘이 세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경험이 많고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접해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능력이 많고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이들이 죄로부터 해방된 자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유일한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만이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롬6:7). 예수님은 죽은 자입니다. 생명이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죽은 자’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죽은 자입니다.** [... 가

](고후5:14b).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요, 함께 묻힌 자요,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입니다. 함께 하늘에 앉힌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몸으로 행하신 일들이 모두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여 그것을 열매로, 선한 행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진리가 아닐 경우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라면 믿을 때 그 믿음의 열매로 드러날 것입니다.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 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은 땅 위에 있지만 곧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위치는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밖에 계시던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 와 영원히 거하십니다. **believe on/into/in the Lord Christ Jesus.** 전치사에 주목해 보십시오. **on은 접촉을 나타냅니다. into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in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건물을 세우면 땅의 힘을 받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의 집들은 대부분 땅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러나 땅을 깊이 파서 그 위에 세운 건물은 훨씬 더 튼튼합니다. 높은 건물들을 보십시오. 땅 위에 세워지는 높이만큼이나 땅 속에도 그만큼의 깊이를 파고듭니다. 땅 위에도 있지만 땅 속에도 건물이 있는 형태입니다. 거대한 나무를 보십시오. 땅 위에 보이는 크기만큼이나 땅 속에 그만큼 크고 긴 뿌리를 뻗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일단 접촉(on)의 연결 단계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습니다. 믿을 때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 옵니다. 머리와 몸, 뿌리와 가지와 같은 그런 생명의 유기체적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듭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신원 확인’,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해야 합니다.